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9월 6일(일) 제1604호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백미 3,757포를 지원했다.

온 누리와 함께 감사와 기쁨을!

2026 사르밧 프로젝트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 나눔 10월 11일까지 순, 개인별 현금 및 나눔대상자 접수

2026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9월 5일(토)부터 10월 11일(일)까지 순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기쁨을 온 누리와 함께 나누는 행사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 교회 밖 이웃, 외부 기관에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을 전달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순과 개인은 10월 11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을 각 캠퍼스 지정 계좌에 봉헌하면 된다. 현금액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인 6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순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순 단위로 참여할 때는 입금자명에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기입하면 된다

(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이 참여할 때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면 된다(예: 온누리 851006). 개인 현금에는 연말정산에도 반영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다른 캠퍼스는 각 캠퍼스 지정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나눔대상자 추천도 받는다. 선정 순위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1순위, 외부 기관 2순위, 외부 개인 3순위다. 대상자 접수는 공동체를 통해 이메일로만 가능하다. 10월 11일(일)까지 이메일(서빙고: 26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공동체 담당 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문에는 '**공동체 **목사님과 **대표장로님께 승인받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은 공동체가 추천한 대상자에게 현지 업체가 직접 발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서빙고에서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담당자가 대상자 리스트를 취합해 10월 11일(일)까지 서빙고로 접수하고, 서빙고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자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9~10월 CGN 정기후원의 달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9월과 10월을 정기후원의 달로 정하고,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후원 행사를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를 비롯해 춘천새순교회, 방주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협력교회에서도 후원행사가 이어진다. 9월 19일(토)과 20일(일)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정기후원 약정 행사를 개최한다.

CGN이 정기후원의 달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땅끝의 증인들'을 공개한다. 9월 19일(토) 지정 풍당, 오전 10시 CGN 유튜브, 9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CGN TV에서 방송한다. '드림온브릿지' 캠페인도 시작한다.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위성 인터넷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CGN 정기후원은 전화(02-796-2243) 또는 홈페이지(cgntv.net),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2026 이주민연합수련회 하비스트 'Reset'

2026년 이주민연합수련회 하비스트(Harvest, 이하 2026 하비스트)가 9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Reset(To Follow Christ)'을 주제로 열린다. 네팔, 몽골, 아랍 등 16개국에서 온 이주민과 차세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의 2026 하비스트 참가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이주민 가정을 위한 추석선물세트, 시상품 등 물품 기증을 받는다. 추석선물세트, 프로그램 시상품, 영양제, 간식, 학용품 등을 9월 20일(일)까지 안산M센터로 보내면 된다. 2026 하비스트에 함께할 자원봉사자 150명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9월 15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2박 3일 7만 원, 1박 2일 및 당일 참가 4만 원.



후원: 하나은행 573-810033-13205

온누리교회

문의: 031-491-9650

온누리사역축제 '하이브리드 교회'

10월 12~1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 Onnuri Ministry Conference)가 오는 10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하이브리드 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성도, 국내 체류 선교사, 협력 기관 리더십 등이 참석한다.

10월 12~14일 오전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총 여섯 차례 주제 강의를 한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의미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선택 강의와 저녁 오픈 집회가 열린다. 선택 강의는 온누리교회 14개 사역본부가 주관하고, 저녁 오픈 집회에서는 이

재훈 위임목사,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는 리더십 수련회를 겸한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각 사역팀 리더십은 최소 하루 이상 참석해야 한다. 임직 훈련생은 하루를 선택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든 일정에 참석해야 한다. 행사 기간 온누리교회의 모든 스쿨과 강의, 기도모임은 온누리사역축제 참석으로 대체된다. 참가신청 방법 및 이수 학점 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한다. 문의: 02-3215-3234(3122, 3534)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3주년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3주년 감사예배를 9월 5일(토)과 6일(일) 대전온누리교회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 영상 상영, 유현목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한다.

유현목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는 "대전온누리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성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세대와 이웃,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ACTS29' 비전을 계속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PRS) 참가자 모집

가을학기 '공동체성경읽기모임(PRS)'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간단한 간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공동체성경읽기와 신앙 서적 읽기(팀컬러 목사의 <기도>)를 한다. 문의: 010-4549-2925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구름

빌립보서 3:7~16

흐린 날에는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시고, 낮을 다스리도록 명하신 이후부터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단지 그 해가 구름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흐린 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가리십니까?”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며 그 나라와 민족의 멸망 한복판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때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보라. 여호와와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사 59:1~2).

이 말씀에서 얼굴을 가린 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신분이 끊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사귀이 흐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내 머리 위에 있도록 만들고 허용한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14세기 영국의 이름 없는 수도사가 쓴 <무지의 구름>(The Cloud of Unknow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할 때 발견하는 것은 일종의 어둠에 속한 무지의 구름이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름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를 완성하셨기에,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 자녀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흐린 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신다. 너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너에게서 돌아서셨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 그분의 자녀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가 우리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는 구름에 있습니다. 그 구름은 우리 스스로 놓아두고, 치우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을 가린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올려놓은 구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구름을 제거하고 나서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째, 좋은 것도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을 가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7절).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는 사업하는 사람의 회계 용어입니다. 이익과 손실이라는 칸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유익’은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형이고, ‘해’는 하나를 뜻하는 단수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를 이익과 유익한 편에서 적어 내려갑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합한 순간 그 답은 바로 ‘해’, 손해였습니다. 8절에서는 그 손해가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개에게 던져주는 찌꺼기’라는 풀이가 되는 말입니다. 길에다 내버리는 오물과 쓰레기를 가리킵니다. 이력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의 열정도, 열심도, 흠 없는 의도는 모두 좋은 것이었습니다. 죄가 아니었고, 해롭지 않았습니. 그런데 왜 그걸 해로 여길까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리는 구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때,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려버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리는 첫 번째 구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구름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구름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경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됩니다. 인간적인 야망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리

는 것이 내 죄가 아니라, 내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내 사역이 되는 순간, 내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업도, 직분도 내 것이 되는 순간 구름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8~9절).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이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햇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가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C&MA 교단을 시작한 A. B. 심슨(Albert Benjamin Simpson) 목사님이 남긴 ‘Himself’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새찬송가에는 441장으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한글 가사로 보면 원래 가사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때는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시라네. 한때는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네. 한때는 주님의 선물을 원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원하고, 한때는 치유를 구했으나 이제는 주님 자신만을 구한다네.”

그래서 ‘Himself’, 그분 자신을 구한다, 그분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의 마지막은 이렇게입니다.

“Everything is in Christ, Christ is everything(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릴 수 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 다 왔다고 여겼던 자기만족을 내려놓고,
자기 교만과 야망과 두려움이 망각의 구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발아래 둬으로써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가리는 구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10~11절).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바울이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그가 10절에서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는 사람이 또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다’는 것은 정보를 더 얻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친밀히 사귀 속에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친밀한 부부 관계의 앎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함’이라고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시험지에 답을 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삶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사귀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앎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식으로 아는 것과 병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앎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기를 원했습

니다. 특히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순서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부활의 능력부터 경험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체험이 아닙니다.

바울이 쓰는 표현들을 주목하십시오. “알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이르고자 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진행형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알고자 했고, 얻고자 했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한 교회의 영성과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의 가장 오래된 분들을 보면 압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오래된 분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이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이르고자 했던, 그리고 여전히 새신자처럼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 혹은 성경 지식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를 가로막는 구름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교회 경험이 하나님과 나를 가리는 구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가 늘어난 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더 가까

워졌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왔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가려진다**

셋째, 우리가 다 왔다고 여기는 순간 뜻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12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증거가 무엇입니까?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다른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15절).

자신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갑니다”(13-14절).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마치 결승점에서 더 빨리 가려고 몸을

앞으로 쭉 뻗듯이 달리는 주자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고백을 <무지의 구름>을 쓴 저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무지의 구름이 당신의 머리 위, 곧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듯이, 당신의 밭, 곧 당신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망각의 구름(cloud of forgetting)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당신 아래에 두어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발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위에 두지 말고 아래 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어둠을 통과하시는 그 3시간, 그 어둠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발아래 두고,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왔다고 여겼던 자기만족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교만과 야망과 두려움이 망각의 구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고, 발아래 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태어나기 전 아기에게 산모의 몸을 쓸 권리가 있는가?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한 사람인 아기에 게 다른 사람인 산모의 몸을 쓸 법적 권리를 줄 수는 없으므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강제로 피를 제공하거나 신장을 기증해서는 안 된다. 장기 기증은 고귀한 행동이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무로 요구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임신한 여성 역시 아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타당한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궁은 산모 자신보다 아기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내 피와 신장은 내 몸 안에 있고, 내 몸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자궁은 다르다. 자궁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신장과 달리 산모의 자궁은 자신보다 자녀를 위해 존재한다. 임신이 산모에게 분명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하다. 하지만 아기가 산모의 자궁 안에서 자라는 것은 자궁의 본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이지, 그 목적을

부모가 거절한다면 그 대학생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부모를 자녀 방임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음식을 달라고 하는 자녀가 대학생이 아니라면 어떨까? 네 살짜리 아이인데 부모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방임이다.

“아이가 더 연약하고 의존적일수록 우리는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

둘째, 아이가 더 연약하고 의존적일수록 우리는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한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하루 세 끼를 차려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

네 살짜리 아이와 대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의존성이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고, 약하며, 취약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정의로운 사회는 부모에게 더 적은 책임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갓난아기와 어린아이, 청소년이 부모에게 음식과 옷과 거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태어나기 전 아기는 특히 더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태아 역시 산모에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모의 몸을 통해 보호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한 사람인 아기에 게 다른 사람인 산모의 몸을 쓸 법적 권리를 줄 수는 없으므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자궁은 산모 자신보다 아기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아이가 더 연약하고 의존적일수록 우리는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온누리세계관스쿨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시대를 분별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필요성



주성대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당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닌 ‘애국적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고, 교회 역시 시대의 압력과 논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시 총회의 결정보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의 삶을 더 귀하게 기억한다. 한국 교회의 아픈 역사인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물음을 주고 있다.

시대의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주를 고백하면서 삶의 판단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삶을 이끄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세계관의 필요성이 시작된다.

세계관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나 지식의 체계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판단하고, 선택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틀이다. 무엇을 진리라고 믿는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는지, 무엇을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세계관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전제’와 같다. 삶과 세상

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세계관이 드러나고, 그 세계관은 다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이끈다.

세속적 세계관과 달리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며,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말씀은 우주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 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안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세속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행동, 습관과 인격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만, 일터에서는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에서는 이웃 사랑을 구하지만, 사회적 논쟁에서는 상대를 쉽게 미워할 수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좋은 성적과 높은 지위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

선택했다.

나는 눈앞의 유익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따르는가? 나의 판단과 선택을 실제로 움직이는 기준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바른 기준을 안다고 해서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욕망과 익숙한 습관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또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실제 삶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수도승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88년 전 한국 교회가 마주했던 질문이 오늘 우리 앞에 다른 모습으로 놓여 있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도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같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88년 전 한국 교회가 마주했던 질문이
오늘 우리 앞에 다른 모습으로 놓여 있다.
시대는 변하고 마주하는 문제도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같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 존재이기에 진화의 과정으로 인간이 존재한다고 보는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역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된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가르친다. 이는 윤회에 의한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는 불교적 세계관이 나,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유물론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성경은 세상을 이해하는 큰 이야기를 제시한다. ‘창조-타락-구속-완성’의 틀을 통해

리 잡은 혼합된 세계관의 모습이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 속에 스며든 혼합된 세계관을 말씀 앞에 드러내고, 분별해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다.

세계관은 결국 삶의 선택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창세기〉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과 목자들의 갈등으로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해야 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간 반면,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고자 먼저 선택할 기회를 롯에게 양보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다른 길을

온누리세계관스쿨

일시: 9월 15일~11월 10일 매주 화 오후 7시

장소: 온라인(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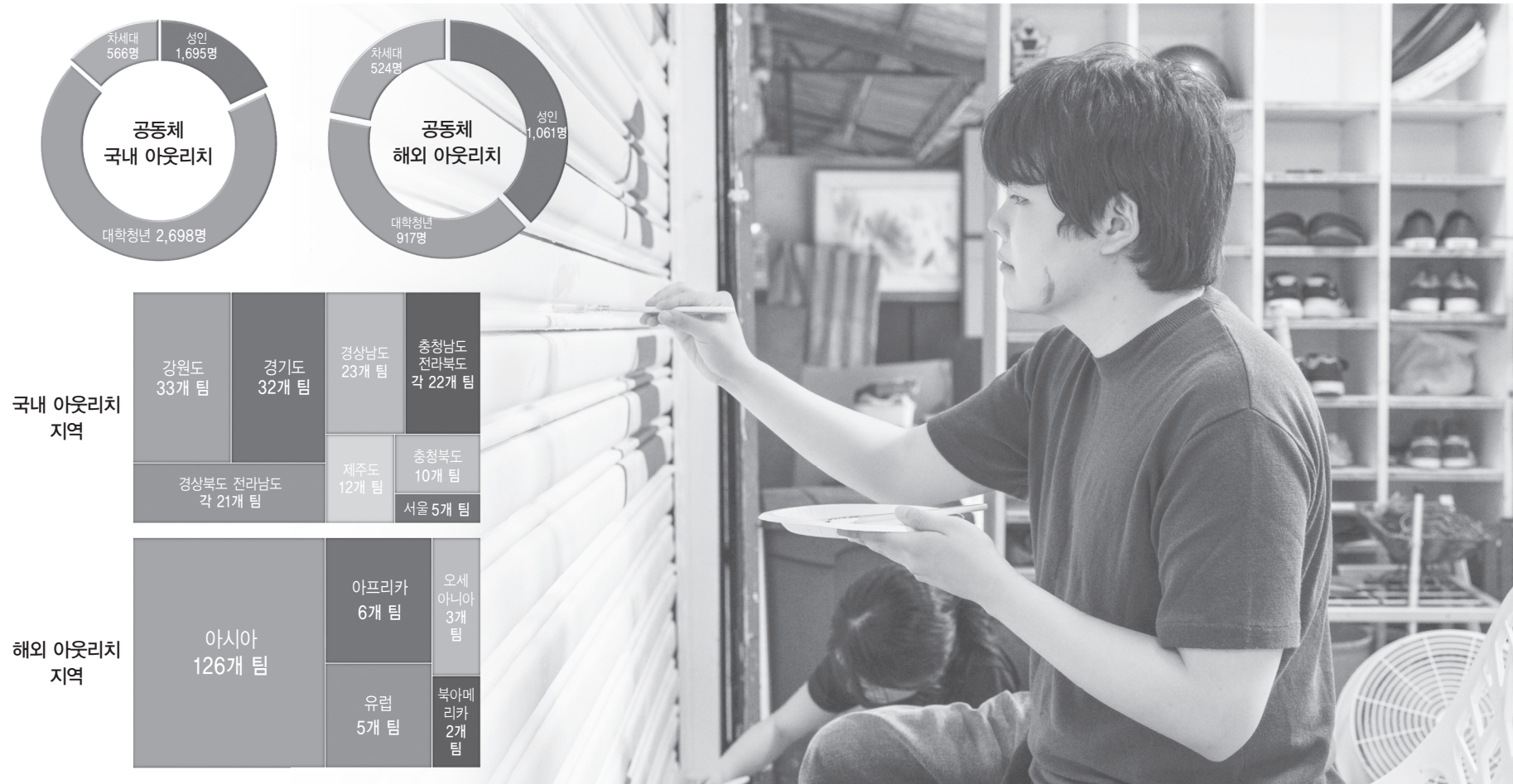
신청: 아이스쿨

문의: 010-5080-1067

2026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

국내 201개 팀 4,959명, 해외 142개 팀 2,502명 참가
국내 강원도, 해외 아시아 최다 ... 교회 수리, 의료사역 등



온누리교회에 온 편지

“내년에도, 아니 매년 다시 만나서”

지난해 양재A공동체가 거창의 두 교회에 아웃리치를 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어렵게 부탁드려 우리 하성교회에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하성교회도 추가되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세 많은 성도들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을 얼마나 기뻐하고 반기셨는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 드린 주일예배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양재A공동체 성도님 70명이 찾아와 이미용 봉사, 발마사지 봉사, 교회 페인트칠, 마을 전도사역 등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롭고, 빛도 없이 시간과 물질, 몸을 내

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대답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이후 6명의 새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녀간 이후 하성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새가족들이 매주 교회를 찾아오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양재A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아니 매년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재홍 목사
(거창하성교회)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번 온민음공동체의 방문은 특별한 배움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치부 학생부터 장년까지 3대가 함께한 팀과 아웃리치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각자 역할은 달랐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줌(Zoom)으로 모여 한국·베트남 가족축제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했고,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슴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기존 캠프와 달리 센터 아이들의 부모님과 새로운 한국·베트남 가정까지 초청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참석했는데, 특히 평소 한두

명에 그쳤던 아버지들이 열 명이나 함께해 더욱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감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비좁은 공간임에도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 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기쁨 선교사
(호치민 해피프렌즈센터)

용인온누리교회

베트남 하노이, 까오방

오랜만에 해외 아웃리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너무 좋아서 매년 해외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딸의 결혼과 출산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선교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선교를 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매년 새해 기도제목으로 삼았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가깝게 지내던 권사님이 “함께 베트남 아웃리치에 가자”라고 권하셨다. 그 제안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베트남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아웃리치 가기 전에 두 달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 예배, K-컬처, 키즈캠프, 찬양, 회계, 서기 등 사역별 팀장을 세웠다. 내가 맡은 사역은 K-컬처였다. 우리가 만날 대상은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재활센터에 입소한 여성들이었다. 그들 대부분 15세 미만의 어린 소녀였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며, 소망을 꿈꾸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했다.

전공인 미술을 살려 아이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면 어떨지 생각했다. 어떤 미술 활동이 좋을지를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만날 사람들은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이



용인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마약 중독 재활센터 아이들과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고 있다.

니 다이어리 꾸미기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연습을 해봤다. 잡지, 스티커, 풀, 마커 등 재료를 모아서 찢어 붙이고, 스티커와 풀 마카펜으로 다이어리를 꾸몄다. 그 위에 기도일기를 쓰고, 감사한 것, 속상한 것, 소망하는 것들을 썼다. 직접 해보면서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좋아하는 색, 모양, 글을 쓰면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치유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아웃리치 날이 왔다. 아이들에게 꾸미기 재료를 나눠주고, 방법을 설명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아이들이 이미 꾸미기 작업에 푹 빠져서 열심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무리를 하고 다섯 명의 아이가 발표했다. 예수님을 만나 흑암에서 빛으로 삶이 변했다는 고백,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전부터 다이어리 꾸미기를 알았다더라면 마약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등을 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나눔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한 사역이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고, 삶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열 배, 백 배로 풍성하게 응답하셨다.

베트남 아웃리치는 오히려 내가 더 은혜받고 감동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베트남 땅을 사랑하고 계셨다. 척박한 까오방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찬양과 기도마저 어려운 그 땅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세우셨다. 부르심에 순종해 그 어두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닛시, 조로이 선교사님과 가정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시는 단프영 성도들, 사명교회 성도들까지. 우리는 분명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중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민진 성도
(용인온누리교회)

영종온누리교회

일본 요코하마

영종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반년 넘게 훈련했다. 하나님은 내게 ‘인생의 첫 아웃리치’라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계셨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일본을 향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와 현지 목사님 가족과의 두 차례에 걸친 우연한 만남, 아웃리치 당일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아이 7명을 포함한 22명의 팀원과 함께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요코하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일본의 한 고육에서 23명이 5박 6일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가 되어갔다. 사역지인 갈보리교회, NCF(Newtown Calvary Fellowship)에서는 ‘코리안 나이트’를 개최했다. 일주일에 두 번 스튜디오를 빌려서 예배드리시는 작은 현지인 교회에 50여 명의 이웃이 모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행사가 문을 열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오병이어의 풍성함이 이런 것일까?”

하나님이 채우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천국 잔치였다. 그 자리에는 노방전도 때 수많은 차가운 시선들 틈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와 우연히 길을 지나던 세 명의 청년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뭘 듯이 기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겠구나.”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든 복음 팔찌



영종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요코하마 지체들을 위해 공연을 하고 있다.

를 모두가 손목에 차고, 어린이처럼 울동하며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 어떤 예배보다 기쁨이 넘쳤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한 몸 된 교회였다.

일본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1% 정도라고 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 길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 적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일본 땅을 살리고 있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로 그 땅을 지키고 계셨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섬기러 온 우리가 깊은 위로를 얻었다.

아웃리치 기간에 리더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도 느껴졌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은혜의 갑옷을 입고, 단검

과 방패를 든 군사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섬겼다. 뜨거운 태양과 갑작스러운 소나기, 잠시 배를 흔들었던 거센 바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으로 노를 젓고, 우리의 선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오래전, 푸른 눈의 선교사들을 태운 배가 인천항과 요코하마항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순종으로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들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작은 배, 하나님의 구조선에 올라 5박 6일의 항해를 감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것은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잠시 항해를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훈련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또 다른 영혼을 향해 출항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출항을 명하실 그날 어디로 가라 하시든,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은 3:2)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배에 오르고 싶다. 그 항해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이진 성도
(영종온누리교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갈렙청년부
대만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다

“이번 대만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지난 8월 3일(월)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일주일 뒤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목표였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에 남은 질문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가 대만에서 무엇을 했는가?”에서 “하나님은 대만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로 바뀌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대만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 일하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만 방문이 처음인 상황에서 현지의 문화와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온 CGN 중문대와 협력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 덕분에 현지 교회와 사역 현장을 만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함께 섬길 수 있었다.

우리는 CGN 중문대와 함께 현지 교회와 예배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섬겼다.



갈렙청년부가 대만 아동센터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공간을 정리하고 페인트칠하는 일도 함께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대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미 대만에 만들어 놓으신 관계와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

CGN 중문대가 제작한 어린이 콘텐츠 ‘바이블 가든’을 활용한 취약계층 어린이 캠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 교회 외벽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벽화 그리

기 사역 등을 하면서 ‘우리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렸다.

CGN 중문대를 방문해서 대만에서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중화권의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CGN 중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 사역에 잠시 동참한 것이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의 삶에도, 함께 예배했던 교회에도, 만났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의 결과를 우리가 만난 사람의 숫자나 진행한 프로그램의 성과로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만난 모든 분과 현지 사역과 연결해 준 CGN 중문대,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현지 교회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대만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현장을 직접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CGN 중문대와 현지 교회를 통해 대만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최인현 형제
(갈렙청년부)

과천의왕공동체

화성M센터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

가족, 가장 귀한 선물

과천의왕공동체가 지난 8월 16일(일)부터 17일(월)까지 1박 2일 동안 ‘가족, 가장 귀한 선물’을 주제로 화성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이하 다평원)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여정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아웃리치였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교차했다. 특히 전날 보은 어린이캠프 아웃리치를 마치고, 바로 화성으로 향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분주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향한 발걸음은 두 달 전부터 기도로 시작되었다. 리더십 줌(Zoom) 회의를 통해 전체 주제에 대한 설명과 의견 나눔이 있었고, 공동체 전체 줌(Zoom) 회의를 통해 비전을 나누고, 본격적인 팀원 모집과 세부 사항 기획을 했다. 현장 답사를 통해 현지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사전 중보기도 회였다. 공동체가 모두 모여 다평원 가정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시간이 아웃리치가 끝난 지금 돌이켜보니 전체 일정 성패를 좌우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선물준비팀’ 팀장으로 섬기는 은혜를 누렸다. 선물준비팀은 다평원 아이들과 공동체 자녀들을 위한 ‘웰컴 키트(welcome kit)’, 가정에 드릴 환송 선물 ‘타월’, 각 객실에 비치할 ‘과일 바구니’를 담당했다. 다평원 가정 대부분이 무슬림이었기



과천의왕공동체가 8개 나라 이주민 가정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

에 물품과 간식을 선정하는 일이 무척 조심스러웠다. 팀원들과 수없이 검색하고 상의하며 그들의 문화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은 각 가정의 방에 환영과 축복의 메시지와 과일 바구니를 미리 가져다 놓는 시간이었다. 마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처럼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세팅을 마쳤다. 땀 흘려 함께 애써준 팀원들과 귀사님이 안 계셨다면 불

가능했을 일이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귀한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아웃리치는 낯선 한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주 배경 가정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끼를 대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과 깨끗한 호텔에서 가족과 아름다운 밤을 보내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8개 나라(러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에서 온 28가정(118명)과 공동체 성도 96명, 총 214명이 시흥 웨이브엠 호텔에서 함께하는 천국잔치가 열렸다. 이 천국잔치는 장차 열방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천상의 모습 같았다. 낮설어하던 가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슬림 가정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은 참으로 몽클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감동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그 진솔한 나눔에 과천의왕공동체 식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가정에 분명한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으리라 확신한다.

이번 아웃리치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즐겁게 섬기며 평생 잊지 못할 벅찬 감동을 남겼다. 무슬림이자 이주 배경 가정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과천의왕공동체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강정현 성도
(과천의왕공동체)

온누리전도콜센터
충청남도 당진

온누리 전도콜센터는 전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 달려가는 사역이다. 교회 곳곳에 비치된 전도요청서와 교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관에 마련된 전도상담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과 지인이 있다면 전도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요청자와 함께 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전도사역자들이 출동해 복음을 전한다.

지난 7월 25일, 전도콜센터가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웃리치를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며 준비했다.

토요일 새벽, 50명이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서 조장 교육을 받았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자고 다짐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특히 전도지 <최고의 행복>이 29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동일교회는 성도의 평균연령이 29세, 성도수가 1만 5천 명에 이른다. 당진 지역 초등학교생의 12%가 이 교회에 출석할 정도로 30년 동안 큰 외적 성장을 이룬 교회다. 하지만 전체 성도의 80%가 초신자이고, 담임목사님 홀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서 말씀 양육이나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전도콜



온누리전도콜센터 아웃리치팀과 당진 동일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센터에 전도특강과 노방전도 교육을 요청해서 이번 아웃리치가 성사됐다.

동일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세 그룹으로 나뉘 ‘최고의 행복 전도특강’을 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자 50명과 동일교회 성도 250명, 총 300명 가까운 전도자가 4~5명씩 팀을 이뤄 전도 특강과 실습을 하고 교제했다. 당진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 해바라기씨와 생수를 나눠주며 생명의 씨앗을 기대하며 전도했다. 오후 2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듯,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게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노방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짧게 간증 나눔을 했다. 한 조는 잠시 더위를 피해 들머리 노인회관에서 밝은 분위기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했다. 또 다른 조는 아파트 단지에서 키포드를 타고 지나가던 초등학교생을 만나 인

사하고 벤치에 앉아 복음을 전해 영접까지 이끌었다고 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사명자 모두가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에게 당진에서도 깊숙이 들어간 척박한 땅에 폐가 같았던 초가집에서 시작해 지금의 동일교회가 되기까지 30년 동안의 간증을 들었다. 그 순간 <이사야> 43장이 떠올랐다. 도로가 없어 눈을 가로질러 다니던 곳이 성도들로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아닌 헌신과 섬김으로 이끌어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눈물과 수고가 얼마나 컸을지도 상상이 됐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일교회와 온누리교회 전도콜센터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일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 몸을 드려 순종하는 발걸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앞으로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복음은 말로 전하고, 전도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이수미 총무
(온누리전도콜센터)

온소망공동체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김현우 선교사는 소말리아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때 선교의 꿈을 담은 뜨거운 마음이 소말리아의 턱말인 케냐로 그를 이끌었다. 김현우, 우주희 선교사의 20년 가까운 케냐 선교 스토리는 이미 여러 개의 다큐로 엮여 있었다.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씨줄과 날줄로 현재를 만들었다.

여권을 잃어버려 경찰서에 들렀던 이야기와 아프리카 정착 초기에 의사소통 문제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뻔한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새어 나왔다. 하나님의 인도로 준비했던 곳을 뒤로 한 채 케냐 몸바사로 들어온 과정도 흥미진진했다. 울타리도 없던 교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 더욱 친밀해졌던 시간을 담은 이야기는 반전 드라마였다. 교회로 들어오는 수도관 중간에 구멍을 내고 물을 훔쳐가는 물 도둑 이야기와 빗물을 모아 물탱크에 가둬두고 쓴다는 이야기는 차마 웃지 못할 현실을 담았다.

부족한 후원금을 쪼개 교회에 팔린 학교 교사의 월급을 줬다고 했다. 바로 그 학교가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진 데는 선교사 부부와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책 <죽은 시인의 사회>를 방불케 했다.

유치원 아이들은 맑고 밝았고 질서정연했다. 표현에도 거침이 없었고 말쑥꾸러기도 서로 배려하며 끌고 밀어줬다. 선교사의 자녀로



온소망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인형극을 하고 있다.

태어난 세 아이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차마 꺼내놓지 않았다.

내 머리에서 다큐 속 내용이 빠르게 지나갈 때 김현우 선교사가 연신 “고맙다”고 했다. 무엇이 고마웠을까? 온소망공동체는 김현우, 우주희 선교사와 결연하고 11년 만에 케냐 몸바사 키캄발라교회에 왔다. 그동안 두 선교사에게는 ‘또 다른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존재가 손에 잡혀야 했던 건 아니었을까?

사명의 커다랗고 단단한 간판 뒤에 숨겨진 막막함과 두려움, 의심들로 묶인 외로움을 이겨낼 돌파구를 찾은 건 아니었을까? 그것들이 합해진 한 마디가 “고맙다” 아니었을까?

나도 “고맙다”고 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먼저 계셨기에 느낄 수 있었던 고마움이었다. 온소망공동체는 15시간 비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날아와 미지의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현지인들의 흥겨운 춤과 찬양이 가득한 주

일에배는 문화적 충격이었고, 곧바로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했다. 케냐 성도들은 김윤식 목사님과 노지준 장로님이 준비한 QT 강의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급하는 그들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준비해 간 인형극은 40여 명의 케냐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아닌 ‘나사로’의 소망이 싹트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억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동행한 자녀들(3가정 6명)에게는 케냐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뛰놀고, 인도양 해변에서 축구하고, 선교의 기쁨을 맛보는 멋진 선물을 줬다. 하늘대학부 청년들과도 협력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이들 덕분에 성인공동체와 청년들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블레싱은 서로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시간이었다. 온소망공동체와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두 선교사 부부를 둘러싸고 축복했다. 그 순간, 케냐 몸바사 하늘의 별들이 고개 내밀며 반짝였다.



박준규 성도
(온소망공동체)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1다락방1사역’의 영적 의미와 준수사항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신

앙 성장을 위한 배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배움을 삶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생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선교는 성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선교는 신앙과 삶을 하나 되게 하는 통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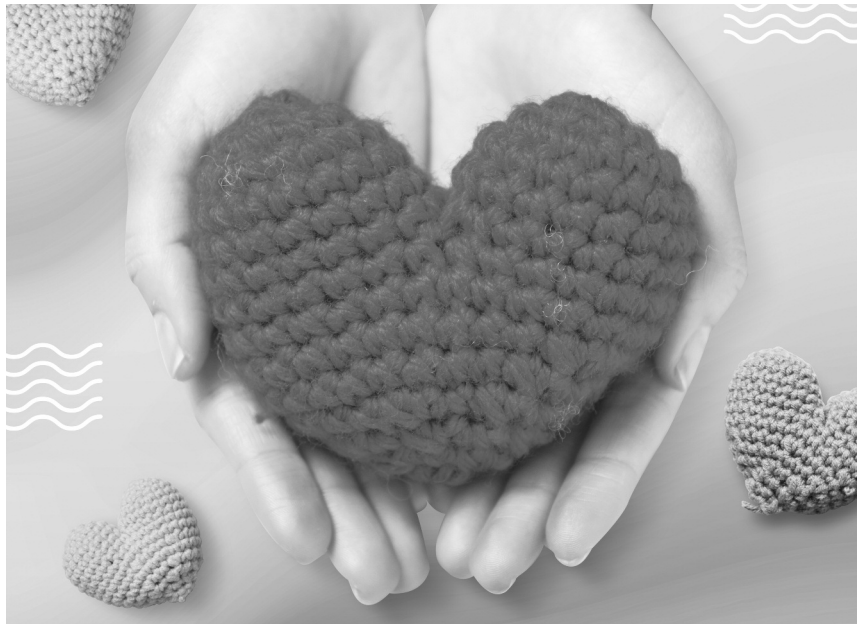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의 사회선교가 추구하는 사역 방향 중 하나가 ‘성육신적 사역’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육신적 사역은 멀리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 함께 머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사역이다.

성육신적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다락방1사역’이다. 1다락방1사역은 각 공동체의 다락방이 공동체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정 혹은 미자립 개척 교회나 시설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1다락방1사역의 세 가지 영적 의미

1다락방1사역은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공동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가 속한 지역 사회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마 22:39). 이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다(요일 3:18).



**‘1다락방1사역’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도 아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다.**

둘째,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이기도 잘하고, 흠어지기도 잘 해야 한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로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 흠어지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공동체가 속한 지역 사회로 흠어져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모이는 교회가 은혜를 채우는 자리라면, 흠어지는 교회는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리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셋째,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섰던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도들 덕분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마 5:16). 그러므로 공동체가 속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행실이다. 빛은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를 나타낸다. 성도들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 지역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듣는 복음’도, ‘보는 복음’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롬 5:8),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한다. 현대인들은 삶으로 실천되는 진리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므로 1다락방1사역은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사역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다락방1사역은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 홀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친구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역이다.

1다락방1사역 위한 네 가지 준수사항

1다락방1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락방 식구들이 1다락방1사역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명감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사역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생명력과 지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혹은 다락방장은 1다락방1사역에 대한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순 식구들에게 편면해서 사역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섬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중보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서 사역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섬김 대상자를 찾고 선정하는 것과 섬길 자를 모집하는 것, 그리고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모든 과정은 중보기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로 준비된 사역은 사람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관계 맺기를 잘 해야만 한다. 공동체가 속한 지역 사회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을 섬기려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관계 맺기’다. 섬김 대상자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하고 대할 필요가 있다. 섬김 대상자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방문자들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언행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온유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뢰가 쌓일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신뢰가 쌓일 때 시작된다. 좋은 이웃 혹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보다 귀한 열매는 없다.

넷째, 물질적인 도움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먼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한 것을 약속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다락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섬길 것을 결정한다. 순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갖는 것은 사역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락방장은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물질은 관계를 여는 작은 문일 수 있지만, 관계를 완성하는 열쇠는 아니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해준 시간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다락방1사역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하셨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도 아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는 온기가 될 수 있다.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내가 속한 다락방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랑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다락방이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기대해 본다.

양재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 ‘첫 특별 침례식’

프랑스어예배 소속 성도 4명 침례

양재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에서 지난 8월 30일(일) 양재온누리교회 뒤뜰에서 첫 특별 침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프랑스어예배 소속 성도 4명이 침례를 받았다.

온누리교회는 장로교회 소속으로 침례식을 하지 않지만, 프랑스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침례를 원하는 지체들을 위해 특별 침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침례식에는 프랑스어예배 성도, 강남B공동체 사랑다락방,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비기독교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남B공동체 사랑다락방에서는 간식을 제공했다.

방선기 목사(프랑스어예배 담당)는 “이번 침례식은 11년 전 불어권 선교를 위해 프랑스어예배를 시작한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의 첫 열매”라고 고백했다.

막심 선교사(벨기에)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네 명의 침례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이번 침례식에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들이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간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티모테 레티 김 형제(프랑스어예배)는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던 교만을 내려놓았더니



양재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 소속 성도 4명이 침례를 받았다.

내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동행하겠다”고 고백했다.

희정 레티 김 자매(프랑스어예배)는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만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했다”면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메일린 로발로 자매(프랑스어예배)는 “고립과 한계 속에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면서 “오늘 침례는 그 크신 사랑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신앙의 응답이었다”고 간증했다.

알렉시아 라쉬넬 자매(프랑스어예배)는 “내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옛 삶을 뒤로하고, 믿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라고 선포했다.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는 국내 유일한 프랑스어 예배로, 한국에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매주 참여하고 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강남B공동체, 우즈베키스탄 아웃리치

K-푸드, 문화, 과학, 스포츠 사역

강남B공동체가 지난 8월 4일(화)부터 9일(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K-푸드와 문화, 과학기술, 축구 및 탁구 스포

츠 사역 등을 했다. 강남B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무슬림 지역에서 맞춤 선교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예정이다.

/ 남현영 기자

2026 남양주온누리교회 예배 컨퍼런스

9월 12일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 및 비전홀 등

남양주온누리교회가 ‘2026 남양주온누리교회 예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Worship Together’ (룸 15:6)를 주제로 9월 12일(토) 오후 2시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과 비전홀 등에서 진행된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예배찬양 사역팀과 예배 안내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6 남양주온누리교회 예배 컨퍼런스에서는 변대섭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 주제강의, 홍정표

장로(서울장신대 명예교수, 온누리교회 성가사) 선택강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장동원 목사(예배본부 본부장) 선택강의 ‘찬양인도자 및 보컬의 역할과 자세’, 황병원 장로(전 온누리교회 예배본부 대표장로) 선택강의 ‘예배지원 및 안내팀의 역할과 자세’가 이어진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9월 6일(일)까지 전화(031-515-3521)로 하면 된다. / 남현영 기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40기 참가자 모집

10월 17일~11월 8일 매주 토 오후 2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4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새골 온누리교회(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에서 진행된다. 3주 차와 4주 차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30일(수)까지 전화나 아이스쿨,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40만 원(자녀 동반시 1인당 7만 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남편 010-4928-0707
아내 010-3340-7039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하반기 관계기술훈련 입문반 참가자 모집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 하반기 관계기술훈련 입문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10시 20분, 양재온누리교회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관계기술훈련은 슬픔, 두려움, 분노, 절망, 수치, 역겨움 등 6가지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아가며 기쁨과 회복, 나눔의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다.

신학과 영성에 대인관계신경생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 지식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 포함).

문의: 02-315-3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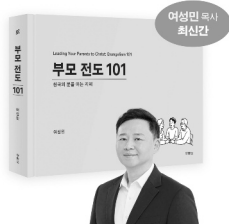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부모님의 마음 문을 여는 방법

Leading Your Parents to Christ: Evangelism 101 부모 전도 101

천국의 문을 여는 지혜



관계의 시작에서 구원의 확산까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한 자녀를 위한
부모 전도의 모든 것!

이재훈·박종길·김부호·이인용·최경주
이영표·박성민·임정민·유혁·추병

〈부모 전도 101〉
여성민 저 | 두란노 | 19,000원

구원의 확산까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도법이 담긴 안내서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제작발표회

9월 20일 첫 방송, MC 장성규, 힐링멘토 김조한, 소향 등

CGN이 지난 9월 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힐링보이스의 기획 배경과 주요 일정, 오디션 방향 등을 소개했다. CGN 전진국 대표, MC 장성규, 힐링멘토 김조한, 소향, 조혜련, 김영우, 양영미 작가, 여중현 PD(CG N) 등이 참석했다. 함태경 본부장 이 사회를 보고, 힐링보이스 소개, 질의응답, 포토타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힐링보이스에는 실력과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본선에 진출한 32명은 찬송가 미션, 가요 미션, 팀 미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한다. 경쟁 오디션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심사위원을 ‘힐링멘토’, 참가자를 ‘보이스’라고 부르는 것도 힐링보이스만의 특징이다.

MC 장성규는 “방송 녹화를 하면서 감동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은 처음”이라면서 “별 기대 없이 참여했는데 탕자 같은 나를 하나



사진은 지난 9월 4일 개최된 ‘힐링보이스’ 제작발표회.

님이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CGN 전진국 대표는 “KBS에서 활동할 당시 언젠가 K-CCM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었다”면서 “힐링보이스가 찬양을 통해 기독교를 넘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

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힐링보이스는 CGN 풍당 론칭 5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일) 오후 5시 첫 방송 예정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AI, 도구를 넘어 사명으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교육선교 특강

이전선교본부 온누리교육선교팀이 9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청소년센터 2층 감성함양실에서 온누리교육선교 특강을 개최한다. ‘AI, 도구를 넘어 사명으로’를 주제로 윤정권 팀장(SWIM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이 강의한다.

온누리교육선교 특강 ‘AI, 도구를 넘어 사명으로’에서는 AI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 선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제 도구와 사례를

살펴본다. 배운 내용을 사역과 일상에 연결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현장 납부). 식사를 원하는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문의: 010-4738-9094



/ 박지혜 기자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농업협동조합 사후관리’ 실시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지부가 북부지역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 사후관리’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영농 및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지부는 지난 7월 20일(월)부터 8월 21일(금)까지 생루이주 툴렌, 간디아이, 마카나 등 3개 마을에서 ‘GGGI 기호스마트농업’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시설하우스가 조성됐지만, 사업 종료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간 사용에 따

른 시설 보완과 협동조합 운영 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기존 사업의 성과가 주민 주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마을별 맞춤 지원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툴렌에서는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설치해 관수 시스템을 개선했다. 간디아이에서는 저수조 제방 보강과 100m 안전 울타리 설치, 마카나에서는 점적관수호스 2,900m와 병충해 예방 농자재를 지원했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9월 13일 ‘2026 전도엑스포’

전도사역본부가 ‘2026 전도엑스포’를 개최한다. 9월 13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전만광장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앞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전도사역본부 19개 사역팀이 참가한다. 전도사역본부 사역팀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방문하면 전도지, 전도용품 등을 나눠준다.

문의: 010-5219-8707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 개강

하반기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개강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온라인에서 모이고 교제하는 공동체다.

2026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소그룹으로 <생명의 삶> 묵상 내용과 삶을 나눈다. 강의를 여성민, 김철희 목사가 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또는 하단 QR 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CGN,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

8월 29일 지사 설립 감사예배 드려

선교 미디어 CGN이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했다.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 감사예배를 지난 8월 29일(토) 말레이시아 KL열린연합교회에서 드렸다. CGN 전진국 대표, JOYMa nna 대표 진수재 선교사, 말레이시아 SIB 교단 관계자, Komuniti Digital(DUMC교회) 관계자, CGN 인도네시아 관계자와 지역 한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CGN 말레이시아 지사는 한인 선교사 및 현지 교회와 연합해 원주민

(Orang Asli)과 다음세대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CGN 전진국 대표는 “CGN 말레이시아가 지역 교회와 선교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곳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말레이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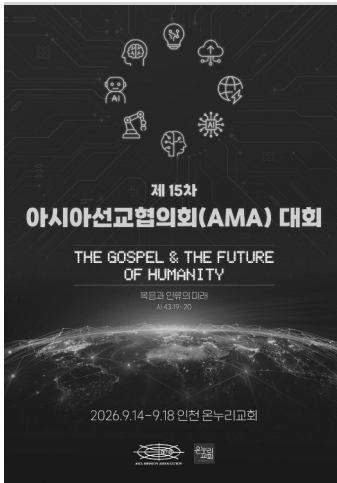
/ 박지혜 기자

아시아선교협의회 ‘복음과 인류의 미래’

9월 14~18일 인천온누리교회, 31개국 200여 명 참가

제15차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가 오는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주제는 ‘복음과 인류의 미래’(사 43:19-20)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31개국 교회와 선교단체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15회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에서는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아시아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을 재확인한다.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선교 전략을 논의한다. 매일 성경 주해와 주제 강의, 세계 선교 네트워크 보고 및 워크숍, 국가별 보고, 기도회, 설교 등이 이어진다. 주제강의는 AI, 디아스포라, 종교다원주의, 정의, 치유, 창조세계, 다음세대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요하네스 나후웨이 목사(GBI마와르사론교회)가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양재 찬양팀, 연풍교회에서 음악 축제 개최

지역 3개 교회 성도 및 지역 주민 110여 명 참석

양재온누리교회 찬양팀(주의빛, 주기쁨, 주임대 등) 소속 대원들이 ‘주찬미남성합단’ 이름으로 지난 8월 26일(수) 충북 괴산 연풍교회에서 음악 축제를 개최했다. 연풍교회, 연풍장로교회, 신평교회 성도 및 지역 주민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축제에서는 장수경 집사(주의빛찬양단) 사회, 주찬미남성합창단 합창, 테너 박순석(크룩스) 찬양, 피아니스트 안소희 연주, 바이올

리니스트 신선이의 특별 연주 등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출연진과 참석자들이 다함께 동요 ‘과수원길’을 불렀다.

오덕수 담임목사(연풍교회)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면서 “음악 축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박지혜 기자

가을, 그 쓸쓸함에 대하여

열린새신자예배 9월 예배

열린새신자예배에서 9월 한 달 동안 ‘가을,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주제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한 전도 초청 예배다. 4주 동안 불안, 무기력, 외로움 등으로 낙심한 이들을 깊이 위로하고, 복음을 전한다.

열린새신자예배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드린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배 실황을 중계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177

양재 02-570-7430

■ 순장학교 261기 수료 간증



/ 김미진 성도(이촌공동체)

더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다!

공동체 순장 추천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제가 어떻게 순장을 해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에 못 하면 또 언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지막 날 급하게 신청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생각보다 많은 과제를 마주했다. 하나님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

조원들의 도움으로 전화 심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제목과 삶을 나누며 공동체의 힘을 경험했다. 또한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읽으며 故 하용조 목사님의 사역과 온누리교회의 역사를 배우며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순장 실습에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 순원들도 자신감을 얻었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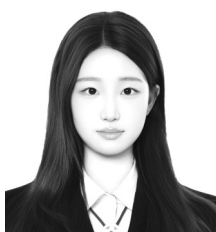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있었던 성령수련회는 내가 어떤 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전 일정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 빨리 병원에 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조장님이 사단의 방해일 수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셨다. 조원들과 손

을 잡고 큰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기도를 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말씀에 집중했다. 아이에게 더 이상 연락은 없었다. 그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

우리 조는 남대문화망공동체 엘림하우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 참여가 처음이라 헌신적으로 준비한 조원들을 따라만 다녀왔지만,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전도, 기도가 가슴 깊이 새겨졌다. ‘작은방’으로 불리는 쪽방촌에서 전도와 심방을 할 때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도 함께했다. 청년들은 매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교회에 가자고 손을 내민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나 역시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순장학교는 내가 더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세상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순장학교를 수료했다고 바로 순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뜨거움을 간직하며 살 것이다.

■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 참가 간증



/ 평시우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고1)

다시 하나님을!
그 뜨거움과 기쁨을!

올해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는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참가한 캠프였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지난해 여름 캠프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 본 적이 없었다. 교회와 예배를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지난해 캠프에서 처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다. 그 뜨거움과 기쁨이 특별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일상으로 돌아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과 다시 멀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캠프의 뜨거움과 기쁨이 그리워졌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번 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 주제는 ‘돌파’였다. ‘내가 돌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발견했다. 두려움을 꺼내 마주하니 힘들었지만,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회 2일 차, 전도사님이 “꼭 눈물이 나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만나는 방법이 다르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 같았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정말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여름 캠프에서 통독한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Nothing Is Impossible’을 찬양하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랴’라는 확신이 생겼다. 걱정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다.

여름 캠프가 끝나고 가장 신기한 변화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전에는 기계적으로 교회에 갔다면, 이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가고 싶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여호수아> 1장 9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교회와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한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온 편지



/ 안사랑 교사(가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방학이 되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더운 날씨에 그것도 방학 중인 아이들을 오전부터 사무실로 오게 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입니다.

지난 8월 7일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과 허브대학부 청년들이 ‘윈데이 아웃리치’를 열어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잠든 아이들을 깨우시고, 한 명 한 명 그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며 조금은 시큰둥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되자 더운 날씨도 잊은 채 웃고 뛰놀았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브대학부 형과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인솔자인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형과 언니들이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함께 웃어주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아이들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행복했던 하루를 집에 돌아간 뒤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함께 웃었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사랑을 나누어주신 양재 이웃사랑팀과 허브대학부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하고 따뜻한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하루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그 기억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길에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같은 하루, 감사와 감동이 가득했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하우미션스쿨 16기 수료 간증



/ 황근희 성도(영종온누리교회)

현지인 중심 선교

선교를 생각할 때면 순교를 각오하고 낮은 땅에 들어가는 선교사의 헌신적인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이번 하우미션스쿨에서 선교의 진정한 성공은 선교사가 그 땅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느냐가 아니라, 복음의 주도권을 얼마나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현지인 중심 선교’라는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

선교는 결코 선교사 개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큰 업적을 남긴 선교사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드러나지 않은 현지인 동역자들이 있었다. 외지인인 선교사가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땅의 정서와 문화, 관습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을 거쳐서 다가갈 때 복음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훨씬 깊숙이 스며든다.

선교의 지속성 역시 선교사 개인에게 달려 있지 않다. 과거에는 선교사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주도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현지인 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 핵심이다. 선교사

가 조력자로 설 때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현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자립하고, 현지인 스스로 역량 있는 사역자로 성장해서 복음 전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교는 선교사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 한 명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지만, 훈련된 현지인 한 명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된다.

하우미션스쿨 마지막 주에 외부 도움에 의존하던 말라위의 현지인들이 CHE(Community, Health & Evangelism) 원리로 능동적으로 마을을 세우고,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참여해 공동체가 변화되는 사례를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무엇인지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선교는 선교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확장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도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곁에서 든든히 세워주는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살고 싶다.

장로칼럼

우리가 함께 듣고 읽는 이유



강신익 장로
(OCC공동체)

성경을 가까이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다는 데 있다. 성경을 펼쳤다가도 바쁜 일상에 밀려 중단하기 쉽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일도 만만치 않다. 나 역시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해왔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일상의 중심에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꾸준히 배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시작한 것이 ‘공동체 성경읽기’와 ‘신앙 고전 읽기’다.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는다.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함께 듣는다. 오디오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디오 북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 고전을 듣는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남은 말씀과 깨달음을 서로 나눈다.

함께 듣다 보면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멈췄을 성경을 계속 듣게 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신앙 고전도 한 권씩 끝까지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과 신앙의 깊은 통찰이 어느새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들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들음’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서로 나누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목표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신앙 고전을 몇 권 완독했는지에 있지 않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듣고 읽는 이유다.

신앙 고전을 함께 읽는 이유도 같다.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했던 믿음 선배들의 질문과 고백에는 우리의 신앙을 비추주는 힘이 있다. 그들의 글을 통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성경이 신앙의 유일하고 확실한 토대라면, 좋은 신앙 고전은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걸어간 이들이 남겨 준 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임을 계속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함께함의 힘’이다. 같은 성경을 듣고, 같은 책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쳤던 한 구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삶을 붙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 만나기도 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고, 신앙의 길동무가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가까이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가을, 그 기쁨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한다.

문의: 010-4549-2925(금요PRS 총무)

권사칼럼

52년 만에 홍콩에서 드린 기도



송기현 권사
(양천공동체)

공동체에서 홍콩 아웃리치를 간다는 광고를 듣는 순간, 주저 없이 참석을 결정했다. 홍콩에 꼭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애 첫 여권에는 1974년 9월 24일 홍콩 이민국의 입국허가 도장이 찍혀 있다. 내 첫 해외 여행자가 바로 홍콩이었다. 당시 나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스테프였다.

대학 졸업 이후 미국계 회사인 Mobil Oil에서 근무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년만 댁겠다는 조건으로 CCC 스테프가 되었다. 그 무렵 CCC는 ‘Explo’ 74’라는 세계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했고, 내게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나는 그 부르심을 무시했고, 순종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Explo’ 74’ 집회가 끝나고, 당시 CCC 대표셨던故 김준곤 목사님이 마닐라의 국제 CCC 동아시아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제안하셨다. 1년만 일하고 떠나려 했던 나의 계획이 그렇게 무산됐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에서 마닐라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홍콩을 거쳐야 했다. 홍콩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나를 반겼다. 안면 있는 홍콩 스태프 집에 머물며 거리를 경험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홍콩 방문 당시 아직 새내기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는 모든 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고, 낯선 마닐라에서의 훈련과 사역도 자신이 없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까 봐 몹시 불안했다. ‘집

회가 끝났으니 원래 계획대로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까’, ‘마닐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등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홍콩 방문은 52년 만이다. 나는 곧 만 78세가 된다.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홍콩 땅을 밟았던 스물다섯 살의 나, 그 이후 반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의 시간을 이 땅에서 다시 회상해 보고 싶었다. 하나님이 지난 50여 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고, 그분의 현존을 더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었다. 믿음의 여정과 삶의 발자취도 반추해 보고 싶었다.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오래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었다. 그 마음을 담아 홍콩에 도착해 올려드린 기도로 글을 마친다.

“하나님, 스물다섯 청년으로 홍콩에 왔던 제가 이제 칠십 후반의 노인이 되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돌아보니 제힘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슬픔과 기쁨을,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삶의 참된 가치와 지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제 평생 가장 좋은 친구였고,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삶의 굴곡을 수없이 만났지만, 옆드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았고, 최선이었습니다. 긴 기다림에 지쳐 상심도 했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제 인생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아왔지요? 삶이 그리도 두려웠던 청년이었던 제게 하나님은 늘 꿈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꿈을 품고 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고백합니다. 저의 최고의 사랑, 가장 귀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재석, 백지현 선교사
(일본)

“나는 심고 아כל로 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전 3: 6).

지난 7월을 돌아보면 큰 사건보다 사람을 만난 기억이 많습니다. 선교는 결국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 15명이 이치가와에 와서 하루 동안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일본 선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이치가와역 앞에서 전도지와 물티슈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어 강좌에 참여하는 ‘하나이 리오’ 군이 준비한 마술쇼가 이날 분위기를 한층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하나이 리오

군은 노방전도 때에도 카혼을 치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날 함께한 M상(24세)도 한국 청년들과 금세 친해져서 노방전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와 저녁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국을 방문한 M상이 그날 만난 청년들을 다시 만나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M상이 믿음의 청년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복음에도 마음을 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코하마 토츠카 그리스도교회 이토우 목사님 내외를 이치가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토츠카 그리스도교회는 미션스쿨 두 곳(A.C.E-JAPAN, 레이몬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란 학생 중에서 6~7명이 목회자로 헌신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어지는 선교

특히 이토우 목사님 부부는 ‘일대일제자양육’을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일대일제자양육을 배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장녀 부부도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토츠카 그리스도교회에 일대일제자양육이 뿌리를 잘 내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던 교회 홈페이지가 일본어로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 자매님이 한 달 넘게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 섬겨주셨다는 사실이 홈페이지가 생겼다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완성된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한국어 기능을

추가하고, 구글 지도 등록을 마무리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치가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와 소통하며, 그 만남이 언젠가 복음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지인들에게 안부를 물었고, 연락이 닿은 분들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6년 대지진을 겪은 분들에게는 이번 지진이 그때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여진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일상이 지켜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 창립 감사예배는 8월에 드렸습니다. 늘 멀리서 저희 부부와 그리스도의 향기 커뮤니티 처치를 기억해 주시는 동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째 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째 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째 주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애틀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양 재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 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피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어려운 전도

좋은마음으로 말했는데, 왜 부모님과 더 멀어질까요?

어쩌면 부모 전도의 어려움은 진심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현장에서 검증한

**101가지
부모 전도
실전 가이드**

복음의 첫 문장은
‘믿으세요’가 아니라
‘미안해요’일 수
있습니다

질문은
부모님이
하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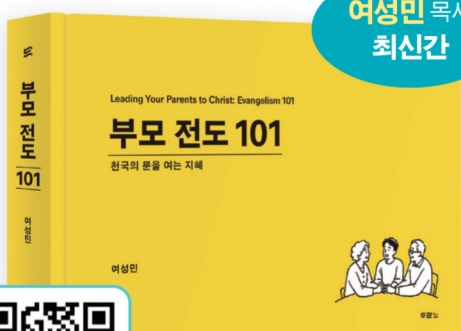
맛있는 밥 한 끼가
열 번의 설교보다
강력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보다
한 끼의 식사와 한 번의 따뜻한 초대가
더 깊이 마음에 닿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부모님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며
관계를 쌓아 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책 속 온누리 성도 이야기



도서 구매하기

부모 전도 101

천국의 문을 여는 지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한 자녀를 위한 부모 전도의 모든 것!

이재훈 · 박종길 · 강부호 · 이인용 · 최경주 · 이영표 · 박성민 · 엄정화 **강력 추천!**

★ 두란노문고 (서빙고, 양재, 송도점 외) 및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